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1년 4월 18일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9): 산둥(山東)성

이 상 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hlee@kiep.go.kr, Tel: 3460-1281)

오 중 혁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연구원 (ojh@kiep.go.kr, Tel: 3460-1286)

■ 2011년 2월에 개최된 산둥성 양회(兩會)에서 '산둥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이 통과되었음.

- 본 계획은 2011~15년까지의 산둥성 발전목표와 방향,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약간의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임.

■ 산둥성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 서민생활 개선 △ 대중의 행복 증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부민(富民) 전략과 내수확대 전략을 실시한다는 정책기조를 밝힘.

- 분야별 주요 과제로 △ 지역간 조화발전 △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 인프라 확충 △ 체제혁신 및 개방확대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 공공서비스 확대 등이 제시됨.

- 산둥성 지역만의 특징을 갖는 내용으로 △ 신에너지, 신소재, IT, 신약, 해양개발 등 5대 신산업의 육성 및 발전 △ 해양경제를 테마로 한 산둥반도 남색경제구(山東半島藍色經濟區) 발전전략 실시가 제시되었음.

■ 향후 산둥성의 경제성장에서 소비, 신산업 및 해양 관련 산업, 산둥성 연해지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정책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임금인상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신규 투자와 관련해서 △ 해양플랜트 및 장비제조, 석유화학 등 해양 관련 산업 △ 신에너지, 신소재, IT 등 신산업 △ 물류, 도소매, 관광 등 서비스업 등으로의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차 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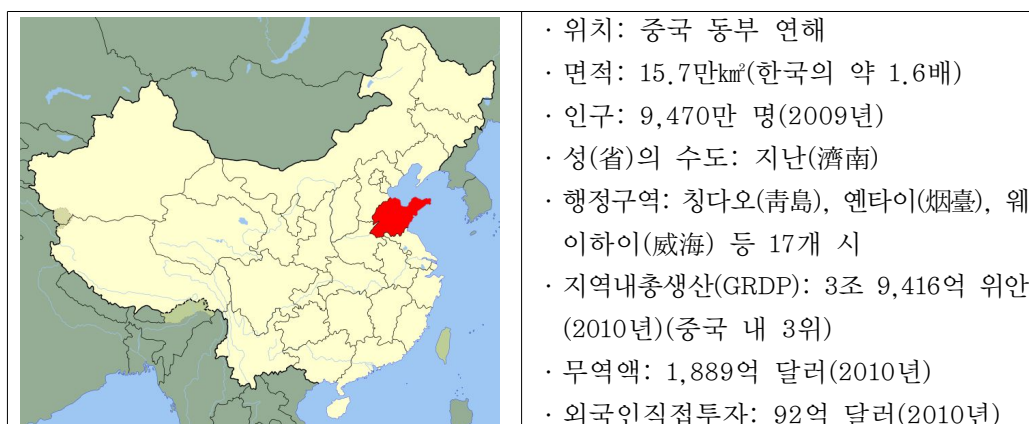
1. 개요
2. 산둥성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성과
3. 산둥성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4. 평가 및 전망

1. 개요

■ 2011년 2월 11~16일 산둥성 양회¹⁾가 지난(濟南)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양회에서는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성과 및 2010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산둥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강요(山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二個五規劃綱要)’ (이하 ‘12·5계획’)가 통과됨.
- 12·5계획은 향후 5년간 산둥성의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약간의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임.

그림 1. 산둥성의 위치와 개요



자료: 위키피디아, 『山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山東統計年鑑2010』.

1) 양회에 대해서는 오종혁(2011. 3. 11), 「주요 성(省)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충칭시(重慶市)」, 중국 성별 동향 브리핑 제11-0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2. 산둥성 1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주요 성과

- 산둥성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11차 5개년 계획(이하 '11·5계획')에서 제시하였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²⁾(표 1 참고).
- 지역내총생산(GRDP)의 연평균 성장률은 목표치 10.0%를 크게 상회하는 13.1%에 달해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³⁾
- 고정자산투자액은 연평균 22.5% 증가한 8조 1천억 위안이었으며, 이는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액의 1/10에 해당하는 규모임.
- 농업, 공업,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2.5%, 14.6%, 18.7%를 기록(부가가치 기준)하였으며, 1, 2, 3차 산업별 비중도 2005년의 10.7:57.0:32.3에서 9.5:55.8:34.7로 조정됨.
- 또한 농촌지역 의료보험(新型農村合作醫療) 가입률 99.6% 달성, 무상교육 전면 실시, 퇴직연금(企業退休人員養老金) 및 최저생계비(住民最低生活保障) 기준 인상,⁴⁾ 최저임금 연평균 18.4% 인상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짐.

표 1. 산둥성 11·5계획 기간의 실적과 12·5계획의 주요 목표

지 표	10차 5개년		11차 5개년		12차 5개년
	목 표	2005년	목 표	2010년	목 표
GRDP(억 위안)	13,150	18,468	30,000	39,416	60,000
1인당 GRDP(달러)	-	2,447	-	6,000	8,000
GRDP 연평균 성장률(%)	9.0	13.2	10.0	13.1	9.0
지방재정수입(억 위안)	820	1,073	2,000	2,749	5,000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	29,816	-	81,000	-
비농업부문 비중(%)	89.0	89.3	92.0	90.5	93.0
소매판매액(억 위안)	4,650	6,166	-	14,212	30,000
무역액(억 달러)	475	769	-	1,889	-
외국인직접투자(억 달러)*	225	340	400	464	-
도시화율(%)	-	45.0	-	49.0	55.0
1인당 도시주민 가처분소득(위안)	8,680	10,745	15,000	19,946	30,000
1인당 농촌주민 순소득(위안)	3,560	3,931	5,500	6,990	10,000
도시 등록실업률(%)	4.0	3.3	4.0	3.4	4.0
산림녹화율(%)	20.0	24.0	28.0	22.8	25.0

주: *는 5년간 누계를 의미함.

자료: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个五年计划纲要』,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一个五年规划纲要』 및 언론기사 종합.

2) 『中国日报』(2011. 2. 13), 「“十一五”山东省综合实力跃居全国第三位」.

3) 『中国日报』(2011. 2. 13), 「“十一五”: 山东固定资产投资为发展增添后劲」.

4) 퇴직연금의 경우 2005년 매월 808위안에서 2010년 매월 1,510위안으로 인상하였고, 최저생계비 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매월 290위안, 농촌지역의 경우 연 1,2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济南时报』(2011. 2. 13), 「数字看两会: 数字回顾山东辉煌“十一五”」.

■ 그러나 완만한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서비스업 발전의 지체, 도·농 간 발전 격차, 낮은 1인당 경제지표 수준, 낮은 서민생활 보장수준 등이 12·5계획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⁵⁾

- 산둥성 정부는 2008년 이후 내수촉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내총생산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36.9%에서 2010년 29.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첨단산업 부문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당초 목표로 했던 35%에 못 미치는 30% 수준을 보임으로써 기대했던 것보다 산업구조의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였음.
- 도·농 간 조화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지역의 1인당 소득비율이 2005년 2.73:1에서 2010년 2.85:1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격차가 오히려 확대되었음.

3. 산둥성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⁶⁾

가. 기본 방향

- 산둥성은 12·5계획에서 △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 서민생활 개선 △ 대중의 행복 증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부민(富民) 전략과 내수확대 전략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의 성과가 서민생활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기조를 발표함.
- 위와 같은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경제발전방식의 전환을 위한 6대 원칙, 5대 발전목표, 그리고 9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함.
- 6대 원칙으로 △ 경제구조 조정 △ 기술진보와 혁신 △ 조화발전 △ 서민생활의 개선 △ 녹색성장 △ 개혁개방을 제시함.
- 5대 발전목표로 △ 종합경쟁력 제고 △ 도·농 간·지역 간 협조발전 △ 사회복지사업 강화 △ 생태 및 주거환경 개선 △ 서민생활 개선이 제시됨.
- 12·5계획 시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경제지표를 제시함.

5) 「中共山东省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的建议」(2010. 11. 29).

6) 이하의 내용은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摘要』와 「中共山东省关于制定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的建议」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함.

-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을 11·5규획 기간의 목표 성장률 10%보다 낮은 9%로 하향 조정한 반면, 1인당 주민소득 증가율은 11·5규획 기간의 목표 증가율 7%보다 높은 10%로 제시함.⁷⁾
-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35%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소매판매액을 10조 위안으로 확대하는 등 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으로의 전환을 강조.
- 서비스업에 대한 고정자산 투자를 연평균 25% 이상 증가시키고, 공업 총 생산액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5년까지 40%로 증가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 지속.

나. 분야별 주요 과제

■ 신산업(戰略性 新興産業)의 육성, 서비스업 및 해양산업 발전 등을 도모함으로써 경제 구조 고도화를 추진함.

- 산둥성 관할 국유기업의 지속적인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통해 2015년까지 경쟁력 있는 10여 개의 대기업을 육성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 3개사 이상이 진입하도록 함.⁸⁾
- △ 신에너지 △ 신소재 △ IT △ 신약 △ 해양개발 및 장비제조 등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2015년 신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이르게 함.
-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2015년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대시키고, 종사자 비중은 40% 이상이 되게 함.

■ 지역간 조화발전과 산둥성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지역개발전략을 실시하고, 도시군(都市群)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도시화 전략을 추진함.

- 산둥반도 남색경제구(山東半島藍色經濟區)⁹⁾,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黃河三角洲 高效生態經濟區)¹⁰⁾, 성도도시군 경제권(省會城市群經濟圈)¹¹⁾, 루난경제벨트(魯南經濟

7) 중앙정부의 경우 주민소득을 매년 7%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매년 13%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산둥성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주민소득 증가율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최저임금도 올해 26% 인상한 바 있음. 新华网(2011. 3. 24), 「“十二五” 规划看民生: 涨工资 给谁涨 谁给涨 怎么涨」, http://news.xinhuanet.com/fortune/2011-03/24/c_121224047.htm.

8) 『大众日报』(2011. 2. 13), 「“十二五” 末山东至少三家国企进入世界500强」.

9) 산둥성의 전체 해역과 칭다오, 동잉(東營), 옌타이, 웨이팡(濰坊), 웨이하이, 르자오(日照) 및 빈저우(濱州)의 일부 지역을 포괄하며, 계획면적이 6.4만㎢에 달함. 이 지역은 2009년 기준으로 산둥성 지역내 총생산의 51%, 무역액의 82%, 외국인직접투자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음.

帶)¹²⁾ 등의 지역개발전략을 실시하여 산둥성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도록 함.

- 특히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전략은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를 테마로 한 지역개발전략으로, 연해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교육센터 건설 및 인재양성을 강화할 계획임.
-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 발전전략은 개발과 환경보호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급 전략으로 생태농업과 신산업,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도시화 전략은 지역간 통합발전의 토대가 되는 도시군 건설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체계를 형성시킴.
- 지난(濟南)과 칭다오(靑島)의 도심지역(建成區) 인구를 각각 400만 명과 450만 명까지 증가시켜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산둥성 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16개 이상 조성함.
- 주민소득 증대, 사회보장 시스템의 확충,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생활과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함.
- 연평균 10%의 주민소득 증가율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5년 도시와 농촌지역의 주민소득이 각각 3만 위안과 1만 위안에 달하도록 함.
- 주민소득의 증대와 경제발전, 임금상승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분배구조 개선.
- 2006~09년 산둥성의 연평균 명목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5.7%였으나 도시주민 1인당 명목 처분가능 소득증가율은 13.5%, 도시지역 1인당 피고용자 보수(명목기준) 증가율은 14.8%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 사회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최저생계비·퇴직연금·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회보장 수준을 제고하며, 주택건설을 확대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과 개선에 기여함.
- 향후 5년간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2011년의 경우 산둥성의 지역별

10) 동잉, 빈저우 및 웨이팡, 더저우(德州), 즈보(淄博), 옌타이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며, 계획면적은 2.7만 km²임.

11) 산둥성의 북부지역인 지난, 즈보(淄博), 타이안(泰安), 라이우(萊蕪), 더저우, 랴오청(聊城), 빈저우를 대상으로 함.

12) 산둥성의 남부지역인 르자오, 린이(臨沂), 자오창(棗莊), 지닝(濟寧), 허저(荷澤)를 대상으로 함.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평균 26% 인상된 1,100위안, 950위안, 800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음.¹³⁾

표 2. 산둥성 12·5계획의 주요 과제¹⁴⁾

과 제	주요 내용
지역간 조화발전	- 산둥성 동·중·서부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황허삼각주 고효율 생태경제구 등 산둥성의 경제 발전을 선도할 지역개발전략 실시 - 도시군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 추진
구조조정 및 고도화	- 첨단산업·첨단제품·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체계 구축 - 5대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신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0%로 확대 - 2015년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40% 이상이 되도록 함 - 해양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3%로 확대
인프라 확충	- 원자력·풍력·태양광·지열·바이오 등 신에너지산업의 발전 촉진 -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현재 92%에서 71% 수준까지 축소, 신에너지 사용비중 14%로 제고 - 철도 총연장을 3,840km에서 6,100km로 확대, 철도 복선화율 60%, 전철화율 98%로 제고, 고속도로 총연장 4,285km에서 6,000km로 확대 - 연해항구 화물물동량 10억 톤 달성
체제혁신 및 개방확대	- 전기전자·섬유의류·농산물·화학·경공업 등 비교우위를 갖춘 업종의 수출 단지 육성 - 가공무역의 전환 및 고도화 추진 - 첨단산업·신산업·서비스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장려 - 상품무역 연평균 10% 증가, 서비스무역 연평균 15% 증가 -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9% 증가, 서비스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중 40% 이상 - 해외 및 중국 내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 연평균 20% 이상 증가

자료: 『山东省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摘要.

4. 평가 및 전망

- 산둥성의 12·5계획은 발전방식의 전환, 산업구조 조정, 소득증대, 서민생활의 안정, 지역개발 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세부내용에서 과도한 목표설정, 중복 투자, 다른 지역과의 경쟁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13) 新华网(2011. 2. 12), 「山东一降一升绘就十二五科学发展路线图」.(http://news.xinhuanet.com/local/2011-02/12/c_13729419.htm).

14) [표 3]에서 제시된 과제 외에 △ 과학교육과 인재양성 강화 △ 문화발전 △ 공공서비스 확대 △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등이 있으나 그 내용은 '중국 12차 5개년 계획' 과 그 내용이 유사함.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만수 외(2010. 11. 29), 「17기 5중전회를 통해 본 중국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의미」, 오늘의 세계경제, vol. 10, no. 3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시스템 확충, 교육 및 의료체계의 개선 등 소득증대와 서민생활 안정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내수확대와 소비주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12·5계획 기간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지속될 계획이며, 특히 금융, 보험, 물류, 도소매, 관광, 부동산 등의 업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과거 서비스업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하는 데 2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된 점을 비추어 볼 때 2015년까지 서비스업 비중을 45%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은 과도한 목표설정으로 보임.
- 핵심 사업으로 제시된 산둥반도 남색경제구 발전전략의 경우,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내 지역간 중복투자·과잉투자의 문제와 인접한 장쑤(江蘇)성이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내용의 해양경제 발전전략과의 경쟁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됨.
- 향후 산둥성의 경제성장에서 소비, 신산업 및 해양 관련 산업, 산둥성 연해지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정책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소득증대 정책의 일환으로 임금이 지속적으로 높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노동집약적 업종의 우리 기업들은 생산비용 상승으로 경영악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신규 투자의 경우 업종별로는 △ 해양플랜트 및 장비제조, 석유화학 등 해양 관련 산업 △ 신에너지, 신소재, IT 등의 신산업 △ 물류 및 도소매 △ 건설 등은 산둥성 정부의 육성정책과 부합하는 부분임.
- 또한 지역별로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관련 정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지역의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보다 우수한 투자환경을 장기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
- 경제력이 집중된 산둥성 동부 연해지역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것이므로, 비노동집약적 업종의 경우 인프라와 생산 네트워크가 잘 구비되어 있고 주요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으로의 진출이 유리할 것임. KIEP